

2005년 기획예산처 업무보고

- 머리말 -

오늘 보고와 같은 거시적 전략 갖고 논의해 본적 없음. 이정도면 예산처에 나라살림 맡겨도 된다는 생각이다. 적극 뒷받침하겠다. 총리실, 경제부총리도 동의하고 지원할 것이다.

산하기관에 대해서는 평가방식 뿐만 아니라 다른 영역도 있다. 행정조직에 대하여는, 정부인력과 예산에 대해서는 행자부와 예산처가 총괄적 컨트롤. 그러나 사업적 조직(정부산하기관, 단체, 공기업 등)은 각기 다른 목표와 자율성 강조하다보니 통제를 벗어나 다양한 인사제도와 평가제도. 예산제도 운영 중. 투명성조차 모호함. 지배구조가 합리적인지 잘 알 수 없다.

인사조직의 혁신, 제도적 기관마다 적절하게 분류하고 추천되는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어떤 경우 정부부처 못지않은 정책적인 영향을 가지고 있고 대통령의 정책부분에 대한 책임을 같이 해야 하는 경우도 있는 데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는 것 같다. 평가하고 관여하는 좀 더 정교한 제도가 있었으면 한다. 평가를 하더라도 몇 가지 핵심에 대해 정확하게 평가함으로써 자율성을 확대해 줄 수 있음 즉 통제 항목수는 줄이고, 대신 몇몇 항목은 깊이있게 통제하는 방식으로 전환함이 바람직하다. 정부혁신위와 머리 맞대고 산하기관 하나하나에 대한 적절한 평가시스템을 제도화 하는 것을 검토 할 것이다.

김용익위원장의 지적처럼 예산총액배분자율편성제도의 약점으로 이익집단에 휘둘리거나 국정 전체방향과 부합하는 사업이 빠질 수 있다. 부작용이 현실화되지 않도록 잘 관리해 나가야 할 것이다.

보고에 전략기획본부로서 예산처를 스스로 자리매김 했다. 전략이 무엇이 라는 것은 보고에 빠져 있으나 이미 이러한 전략은 많이 나와 있다. 이 부분에 관하여 인적자원 개발중심, 혁신주도 경제, 인적자원 중심의 발전전략, 복지에 있어서 생산적 복지, 기회의 복지 등이 있을 수 있다. 앞으로 가치지향에 있어서 추구하는 목표, 사고의 큰 틀에서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양적확대 지향의 경제, 큰 것 중심에서 질적 향상 목표를 다양하게 추구하게 된다. 양적 수준을 향상시키는 질적 향상을 목표로 해야 한다.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의 예산과 자율권 넘긴 후 효과적으로 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통제해야 하는 데 직접통제방식과 인센티브(교부세) 지원방식이 있다. 직접통제는 자율의 원리에 맞지 않아 저항이 많다. 중앙정부가 항상 옳은 것도 아니고 신뢰성 문제도 있다. 인센티브 제도도 안 먹히는 부분이 있고, 시민적 통제가 가장 유력한 방법이 될 수 있다. 시민들에게 쉽게 투명하게 공개하는 방법이 가장 효과적인 효율성 확보방안이다.

각 부처가 책임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예산처가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으니 대통령이 받쳐달라고 건의했다. 적극 지원하겠다. 자율만큼 책임이 꼭 따라야 한다. 오늘 혁신관련 보고 중 부처자체 자기혁신은 잘 나타나 있으나 정부전체의 혁신을 이끌고 밀어주는 역할에 대한 부분은 좀 미흡한 것 같다. 혁신의 주무부처다 라는 관심을 가지고 갔으면 한다. 예산처가 이제까지 혁신관리 변화관리 측면에서 혁신참여도가 낮았으나 올해는 많이 달라지지 않을까 기대한다. 정부산하연구기관 등을 최대한 활용하기 바라고 각 부처에 일을 맡기고 앞으로 효과적으로 큰 목표를 조기에 완성시키 나갔으면 한다.